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행정부 데이터를 팔란티어를 통해 통합하고 이 회사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이민자를 색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 이민자는 물론 정치적 반대자까지 감시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 오사마 빈라덴 잡던 팔란티어 기술, 이민자 색출에 활용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추방 위한 '킬 체인' 데이터 기술 활용 확대  
시와 팔란티어 기술로 이민자, 정치적 반대자까지 정밀 추적

(뉴튼=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인공지능(AI)과 군사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정밀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자 건강 및 정책전문가인 에드워드 키삼은 아메리카 커뮤니티 미디어(ACoM)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보테크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개발한 '킬 체인(Kill Chain)' 분석 시스템

이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단순히 국경 단속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욱 무력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전체 기사 읽기〉

만 적용되며, 다른 비자 소유의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범죄 수사 대상'이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가 무효화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전 보좌관 두 명을 '반역 혐의'의 수사 대상

▶▶6면으로 계속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용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용자·재용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보스톤 집값 100만 달러 시대... 사상 첫 돌파**

BBJ, 그레이터보스톤 단독주택 중간가 100만 달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이 6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기며,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임을 입증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회(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s, GBAR)는 7월 17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보스톤 지역 단독주택의 중간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달러

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주택 매매가 집중되는 여름철 거래 시즌을 거치며 점차 상승해온 결과다.

GBAR협회 회장이자 레딩에 본사를 둔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Premier Realty Group Inc.) 대표인 마크 트리글리오는 "보스톤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다

▶▶2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 홍상수 감독 회고전 '사계절' 시리즈 개최

파트원, <여름과 가을> 8월 15일부터 11월9일까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내년 봄 보스톤 방문해 대화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HFA)는 한국 영화의 거장 홍상수 감독의 작품 세계를 계절별로 조망하는 회고전 '홍상수의 사계절' (The Seasons of Hong Sangsoo) 시리즈의 첫 파트 (PART I) '여름과 가을' 을 오는 8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케임브리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고전은 홍 감독의 작품 세계를 사계절이라는 테마로 나눠 상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장으로, 2026년 봄에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직접 참석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

다. 홍상수 감독은 1990년대 초반 한국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박찬욱, 이창동, 봉준호 감독들과 같은 시대에 데뷔했지만, 주류 장르 영화가 아닌 개인의 사랑과 고독, 관계에 집중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는 복잡한 이야기 전개 구조와 계절, 장소의 미묘한 분위기를 섬세하게 반영하는 연출 방식으로 국제 영화계에서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HFA는 "홍 감독의 작품은 계절의 변화가 인물의 감정과 이야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며 "이번 회고전은 각영

### <전체 기사 읽기>

화가 실제로 설정된 계절에 맞춰 상영된다" 고 밝혔다.

이번 '여름과 가을' 챕터에서는 김민희와 함께한 최근작인 「풀잎들」 (2018), 「탑」 (2022), 「우리의 하루」 (2023), 「수요전」 (2024)은 물론,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한 「다른 나라에서」 (2012), 초기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1996), 「강원도의 힘」 (1998) 등 총 17편의 주요 작품들이 상영된다.

특히 「여행자의 필요」 (2024)는 2024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한국에 불쑥 나타난 프랑스 여성이 언어 강사로 살아가며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고전은 하버드 캠퍼스 내 카펜터 센터에서 열리며, 각 상영작은 원어(한국어 또는 다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상영된다. 상영 일정과 티켓 정보는 HFA 공식 웹사이트(hcl.harvard.edu/h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은 티켓이 \$10이며, 하버드 학생 및 교수진은 \$8이다. 특별 이벤트 티켓은 \$15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단독주택 중간 가격 100만 달러 시대... 사상 첫 돌파

▶▶1면에 이어서

면, 이번 6월의 기록적인 중간 주택 가격이 그 증거" 라고 말했다.

GBAR은 495번고속도로 인근 67개 지역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며, 이에 보스톤 인근의 대표적인 시와 타운이 포함된다.

한편,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다소 넓은 기준으로 보스톤 대도시권을 정의하며, 올해 1분기 기준 중간 단독주택 가격을 7만 4천 달러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계절적 가격 상승 이전이었지만, 전국 주요 대도시권 중 실리콘 밸리, 로스앤젤레스, 시애틀에 이어 7위를 기록하며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 D.C.를 앞질렀다.

주정부와 시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MBTA 커뮤니티법(MBTA Communities law)과 유휴 국유지 활용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취임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케임브리지시는 올해 초 단독주택 조닝(single-family zoning)을 폐지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한편, 워렌 그룹(Warren Group)의 통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전역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5월 기준 6만 6,125달러로 집계됐다.



서울설령탕  
SILGUL SEOLLE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e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 넷플릭스 인기 연극 보스톤 공연, 이민 1세대에 바치는 러브레터

인스 최 주연 연극 <김스 컨비니언스>  
헌팅턴 극장서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캐나다와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시리즈 <김스 컨비니언스(Kim's Convenience)>의 원작 연극이 올 11월 보스톤 무대에 오른다.

헌팅턴 극장(The Huntington)은 오는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보스톤 사우스엔드의 칼더우드 파빌리온(Calderwood Pavilion at the BCA, 527 Tremont St)에서 순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스 컨비니언스>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

이 운영하는 토론토의 동네 편의점을 배경으로, 세대 차이와 문화 충돌, 가족애를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이 연극은 캐나다 아티스트 중심 극단인 소울페퍼(Soulpepper)와 샌프란시스코의 아메리칸 컨서버토리시어터, 아담 블렌셰이 프로덕션의 공동 제작으로 진행되며, 연출은 웨이니 멩게샤가 맡았다.

극작가이자 원작 드라마의 공동 제작자인 인스 최(Ins Choi)는 이번 보스톤 공연에서 아버지 '김씨' 역할로 직접 출연한다. 최씨는 "이 작품은 나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낯선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이민 1세대들

### <전체 기사 읽기>

에게 바치는 러브레터"라며 "처음에는 아들 '정' 역할로 무대에 섰지만, 이제는 아버지 역할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 연극은 2011년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적인 연극으로 평가받으며 CBC와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로 제작됐다. 토론토 스타는 이번 연극을 "여전히 날카롭고, 재치 있으며,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평했다.

출연진은 '김씨' 역에 인스 최, 아내인 '엄마' 역에 에스터 정, 아들 '정' 역에

라이언진, 딸 '자넷' 역에 캘리서, 다양한 손님(손님, 경찰) 역에 브랜든 맥나이트가 캐스팅됐다.

무대, 조명, 음향, 의상, 투사 영상 등은 조안나유, 밍윙, 니콜은주벨, 웬링리아오, 판장 등의 캐나다 및 북미 무대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김스 컨비니언스>는 헌팅턴이 외부와 협업해 선보이는 셀렉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시즌 구독자 및 플렉스패스 소지자들도 티켓을 이용할 수 있다.

티켓은 [huntingtontheatre.org](http://huntingtontheatre.org)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5부터 시작한다.

#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 뉴햄프셔, 연례 차량 인스펙션 폐지... 매사추세츠는?

### GAO, 인스펙션 차량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 공화당 의원들, 비용만 많이 들고 불필요 주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주가 내년부터 연례 차량 인스펙션(Auto Inspection)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에서는 인스펙

션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켈리아르트 뉴햄프셔 주지사는 최근 해당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안에 서명했으며, 새 규정은 2026년

#### 〈전체 기사 읽기〉

1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연례 차량 인스펙션은 비용만 많이 들고 불필요하다” 며, 차량 점검 시점은 운전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스미스 하원 부의장은 지난 4월 WBZ 인터뷰에서 “이 법은 전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법” 이라며 “인스펙션 업체들이 도로 안전과 무관한 수리를 강요해 돈벌이에 악용해 왔다” 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사기” 라고까지 표현했다.

스미스의 의원은 “해당 제도를 없앤 다른 주들을 살펴봐도 대형 사고가 급증한 사례는 없다” 며 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뉴햄프셔 주 경찰과 자동차 산업 단체들은 연례 차량 인스펙션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스펙션이 배출 가스 점검도 포함하고 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주 경찰은 “인스펙션 폐지는 위험 차량을 도로 위에서 직접 단속해야 하는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하는 셈” 이라며, 이미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결정으로 뉴햄프셔는 인근

주들과의 정책 차별성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메인, 버몬트는 모두 연례 차량 인스펙션을 시행 중이며, 로드아일랜드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코네티컷은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보스톤글로벌가 칼럼을 통해 인스펙션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거나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인스펙션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15년 보고서에서 인스펙션이 차량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고 분석했다. 2021년의 또 다른 연구는 정기 점검이 사고 감소에 약간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인과관계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햄프셔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인스펙션 제도 폐지로 인해 주정부는 연간 약 340만 달러의 세수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JUNG KWAN JANG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정관장 홍삼정

6년  
KOREAN RED GINSENG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 힐리 주지사, 영어 학습자 직업 훈련에 1천만 달러 투자 발표

### 트럼프 행정부 성인 교육 지원 중단 위기 속... 매사추세츠는 영어 교육 확대 나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1천만달러를 투자해 만성적인 영어 교육 대가자 수를 줄이고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최근 확정된 예산 (Fair Share Supplemental Budget)에 포함된 1천만 달러 예산 배정을 통해, 약 3,000에서 5,000명의 주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자는 주 전역의 ESOL 프로그램 대기 인원을 줄여 영어 교육을 확대하고, 의료, 복지, 제조, 숙박 등 고용이 필요한 분야와 연계한 실질적인 직업 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는 100여 개의 성인 교육 및 ESOL 프로그램을 통해 3만 명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

#### 〈전체 기사 읽기〉

는 연방 교육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던 '성인 기초 교육 보조금 (Adult Basic Education Grant)' 을 유보한 상태다. 매사추세츠가 받을 예정이던 금액은 약 1,3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영어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연방의 지원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주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힐리 주지사는 "고용주들이 인재를 찾고 있는 지금, 영어 수업과 직업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돕겠다" 며 "이번 투자는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를 지지하는 조치" 라고 강조했다.

드리스콜 부지사도 "성인 교육은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

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며 "영어 학습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투자의 핵심" 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힐리 행정부가 추진하는 직업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직업기술 위원회 (Workforce Skills Cabinet)를 중심으로 ESOL 전략을 주 전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패트릭 터와일러 장관은 "모든 주민은 존엄성과 지원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룰 기회를 가져야 한다" 며, "이번 예산은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라고 평가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초·중등 교육감은 "영어 수업은 단지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 라며 "성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배운다" 고 말했다.

이번 투자와 연계해, 주정부는 MassHire 커리어센터 등과 협력해 구직 지원, 진로 안내, 일자리 연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민자, 영어 비사용자 등 취업 장벽이 있는 주민들의 경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기대된다.

hsb@bostonkorea.com



# 연방 지원 삭감 속 매사추세츠 하원도 보좌관 채용 동결 발표

### 지난 5월 힐리 주정부의 채용동결에 이어 두번째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하원이 연방 정부의 주정부 지원 예산 삭감을 고려해 의회 보좌관 인력 신규 채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지출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메디케이드 (Medicaid) 건강보험 프로그램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정부의 예산 계획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인사담당캐서린 팔머 디렉터는 이번 채용 동결이 "임시적이며 선제적 조치" 라며, 이미 승인된 채용이나 보좌관이 1명뿐


#### 〈전체 기사 읽기〉

인 주 하원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인력 보충 (backfill)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올해 주정부가 서명한 예산안에 따르면, 하원운영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98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현재 하원의회에는 선출직 의원을 제외하고 528명의 상근직 직원이 근무 중이다.

팔머 디렉터는 "이번 채용 동결은 지출을 통제하고 직원 및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라고 설명했다.

이번 동결은 주정부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5월 두 해 연속으로 주정부 전반에 걸친 채용 동결을 단행했다.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오사마 빈라덴 잡던 팔란티어 기술, 이민자 색출에 활용

▶▶1면에 이어서

'이라며 공격했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수사 목적이라며 요청한 것에 대해 이를 승인했다. 이 결정은 세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이 반대했음에도 긴급 판결로 통과됐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긴급성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소송 절차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와 동시에 팔란티어(Palantir)는 국토안보부(DHS)로부터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 이민자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한 AI 기반 타깃 식별 기술을 민간 정보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군사 용어로 '킬 체인'이라 불리며 탐지, 식별, 추적 후 제거라는 일련의 절차 중 첫 단계에 해당하는 표적 식별 기능을 수행한다.

팔란티어 전 직원 후안 세바스찬 핀토는 "이 기술은 단순히 테러리스트나 적군을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위협'이라고 규정한 대상이라면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 사일로 제거 행정명령>이후, 여러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청(CMS), 국세청(IRS), 푸드스탬프 프로그램(SNAP), 사회보장국(SSA), 교육부, 우체국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가 통합되면서, 한 가정 내에서 시민권 보유 자녀의 복지 혜택을 신청한 정보가, 부모 등 다른 미등록 이민자의 신분 추적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또한, 영어 수업 등록 여부나 의료 서비스 이용시 통역 사용 여부 등도 비시민권자일 가



능성을 판단하는 'AI 지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사용이 대부분 투명한 감시나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식별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현재 연방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

중도성향의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또한 ICE가 국세청, 사회보장국, 의료, 복지, 주소 등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하게 연결해 대규모 추방 및 검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민간 데이터베이스 상호운용이 이민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팔란티어의 기술은 개인의 이름, 주소, 출신국뿐만 아니라 ESL 등록 여부, 의료 통역 필요기록, 복지 서비스 이용 이력 등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의 데이터를 통해 AI는 '확률적 추정'을 통해 이민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표적화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접근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작동하며, 한 가족의 데이터가 연동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를 낳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색출함과 동시에 이민자들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감소케 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팔란티어는 현재 각광받는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회사로 데이터의 속성을

수집해 의미를 형성하는 관계를 파악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정부용 플랫폼 고담(Gotham), 민간용 플랫폼(Foundry)를 통해 정보분석 운영 최적화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까지 도입, 고도화하고 있다. CIA의 벤처 투자사 인큐텔(In-Q-Tel)의 초기 투자를 받아 출발했으며, 주로 미국 정부기관(국토안보부, 국방부, FBI 등)과 협력해 정보 수집, 수사, 이민 단속, 군사 작전 등에 활용되는 기술을 제공해 왔다. 오사마 빈라덴을 추적 사살하는데 결정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위치과파 사살, 우크라이나의 소련과의 효과적인 전쟁 등에 이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 감시 논란도 야기하는 논쟁적 기업이다.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 코스트코의 20달러짜리 바지 한 벌...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나란히

코스트코의 860억 달러 매출의 비밀...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바지를 약 20여 달러에 구입해 착용한 이후 다른 브랜드의 바지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 착용감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쏙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기자의 생각에만 그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Kirkland Signature)는 이

제 단순한 자체 상품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럭셔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의 한 사례로 최근 프리미엄 의류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이 코스트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을 들었다. 룰루레몬은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128달러짜리 남성용 바지를 모방한 유사 제품을 코스트코가 20달러에 판매하

**〈전체 기사 읽기〉**

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 해당 제품은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로 출시됐다. 하지만 이 법적 분쟁은 오히려 코스트코의 인기와 성공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코스트코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은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에서 나온다. 1995년 론칭된 이 브랜드는 '고품질 + 저가격'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으로 소비자

들의 충성도를 확보해왔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코스트코 전체 매출이 두 배 성장하는 동안 커클랜드 매출은 세 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커클랜드 브랜드의 매출은 약 8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프로cter앤amp;G(P&G)이나 LVMH의 매출과 맞먹는다. 코스트코의 상징과도 같은 1.50달러짜리 핫도그 세트 역시 커클랜드 브랜드 제품이다. 코스트코는 타 유통업체보다 훨씬 적은 품목을 취급하며, 바리다 매 전략을 통해 수익을 낸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도매가에 최대 14%까지 마진을 붙이며, 커클랜드 제품은 15%까지 허용된다. 즉, 커클랜드 제품 하나가 등장하면 기존 브랜드 상품 가격을 낮추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협상력 강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 저가 혜택이라는 '윈윈' 구조다. 코스트코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초콜릿 마카다미아 클러스터 가격을 17.99달러에서 14.69달러로 내렸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소개하기도 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은 철저한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만 매장에 진열될 수 있다. CEO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가 부족할 경우 과감하게 단종시킨다. 예를 들어 커클랜드 치약은 콜게이트 크레스트보다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됐다.

의류, 식료품, 와인, 생수, 수입 치즈, 혼합 견과류 등 코스트코의 거의 모든 상품군에 커클랜드 제품이 있다. 전 CEO 짐 시네겔은 자신이 커클랜드 속옷, 양말, 안경까지 착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룰루레몬은 이번 소송에서 코스트코가 바지의 스트레치 원단, 독특한 밑위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병의 곡선, 루부탱 구두의 빨간 밑창처럼 고유한 형태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코스트코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비슷한 품질의 바지를 1/6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정보를 퍼뜨리는 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이 바지를 찾으러 코스트코에 몰려든 소비자들로 인해 일시 품절 현상까지 발생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는 더 이상 단순한 자사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를 모으고, 매장을 찾게 만들며, 기존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까지 유도하는 코스트코의 '비밀 무기' 다.

"단추 하나, 바느질 하나까지 비교해보면 우리 셔츠가 최고다." 코스트코의 창립자 시네겔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커클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86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선택이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폴 리버 시니어 요양시설서 대형 화재... 9명 사망, 30명 이상 부상

사망의 큰 원인은 연기, 스모크 감지기 설치됐으나 작동여부는 조사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서 남쪽으로 50여 마일 떨어진 타운, 폴 리버에 위치한 시니어 요양시설에서 13일 밤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화재는 오후 9시 30분경 올리버 스트리트에 위치한 가브리엘 하우스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제프리 베이컨 소방서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에서 불길 이 치솟고, 창문 너머로 주민들이 구조를 애타게 외치고 있었다" 고 전했다.

화재는 건물의 한 동에서 시작됐지만, 연기는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입주자들이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다. 소방대원들은 창문을 통해 주민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78세 생존자 닐 벡은 3층 창문을 통해 구조됐다고 말했다. "육실 창문으로 뛰어내릴까 고민했지만, 너무 높아서 포기했다. 다행히도 그때 구조대가 도착했다."

당시 시설에는 약 70명의 주민이

있었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병원으로 이동해 정확한 부상 자수는 아직 집계 중이다. 소방당국은 소속 소방관 5명이 치료 후 퇴원했다고 밝혔다.

폴 리버 시의 폴 쿨건 시장은 "지난 6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참사는 처음"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이라 표현했다. 그는 건물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가브리엘 하우스가 지난해 10월 시 점검을 통과했으며, 인증서가 올 가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재민 중 7명은 임시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 주정부와 시정부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베이컨 소방서장은 "화재보다 더 많은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 연기"라며 "스모크 탐지기 경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모크 탐지기 설치 여부는 확인됐지만, 작동 상태는 조사 중이다.

한편, 생존자 중 75세 셸리 캄브라는 "화재 당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 〈전체 기사 읽기〉

창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괴롭다"며 눈물을 흘렸다.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세인트앤 병원에는 임시 구조 센터가 설치되어 주민과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

힐리 주지사는 14일 현장을 찾아 "엄청난 비극"이라 말하며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응이 더욱 어려웠다"고 전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45세 리오 존슨과 46세 조셋 존슨은 어머니 캐럴린 존슨(68)이 다행히도 생존했지만 연기 흡입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한 주민이 복도를 돌며 문을 두드리며 다른 이들을 깨웠다"고 전했다고 한다.

가브리엘 하우스는 1999년에 지어진 시설로 100개 유닛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총 50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30명은 비번이었다.

한 시설 유지보수 직원은 "거주자들은 원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겹쳐 너무 안타깝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현재 주 경찰 화재조사팀, 지역 소방국, 브리스톨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수일 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제압 중 남성 사망, 7명의 헤이버힐 경찰관 정직처분

40대 정신건강문제 남성 경찰 제압과정에서 압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정신병력을 가진 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케 한 7명의 헤이버힐 경찰관들이 유급 직무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로버트 피스톤 주니어 헤이버힐 경찰서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경찰관들이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경찰관의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에섹스 지검 폴터커 지검장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 프랜시스 질리오티는 11일 윈터 스트리트에 위치한 브래드포드 시푸드 레스토랑 밖에서 그를 제압하려는 경찰들에게 불안정적이고 난폭한 태도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실갱이를 벌이다 경찰들은 여럿이 그를 제압키 위해 짓눌렀으며, 그는 무의식 상태가 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과 사망한 질리오티의 조카인 라테시아 토레스씨가 올린 비디오 영상에는 질리오티의 몸 위에서 5-6명의 경찰들이 올라타 있으며 피스톤 서장은 "현재는 조사 앞드린 채 바닥에 깔린 질리오티는 계속 '도와줘' 라고 비명을

〈전체 기사 읽기〉

지르는 모습이 찍혀있다.

13일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경찰의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G.A.R. 공원에서 경찰서와 시청까지 행진했으며, 한 시위대 여성이 들고 있는 포스터에는 "죄없고 병든 사람을 살해 하라고 경찰에게 우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적혀있었다.

질리오티의 약혼자 미셸 루니는 그가 연이은 가족의 상실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요일 저녁, 레스토랑에 있던 질리오티 씨는 루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여기로 와줘. 그들이 날 죽일 거야"라고 말했다고 약혼자는 전했다.

루니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경찰들이 그에게 올라타 있는 상태였고 그의 안색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도와줘, 숨을 못쉬겠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내 축 처졌다. 루니는 "그럼에도 경찰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고 계속 짓눌렀다"고 주장했다.

피스톤 서장은 "현재는 조사 중이며 조사 후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트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깝게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련

Letterly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 2차 집중 프로그램 접수중

기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 마감: 6월 21일까지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 크립토 3법, 연방하원서 이틀째 표류 ... '크립토 주간' 휘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규제를 결정지을 주요 법안 세 건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이틀 연속 교착상태에 빠졌다.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내분이 격화되면서, 당초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명명된 이번 주의 입법 성과에 회의가 찾아들고 있다.

7월 16일 수요일 오후까지 협상은 계속됐지만,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은 물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정안에 기존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 건 중 두 건의 법안이 현재 형태대로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하원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의장 마이크 존

슨은 공화당 이타표를 3표 이상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6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입법이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백악관에서 보수 성향 의원 12명가량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고, 이후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교착상태는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들 법안은 상원을 이미 통과한 GENIUS 법안, 하원에서 먼저 논의 중인 CLARITY 법안, 그리고

### 〈전체 기사 읽기〉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법안을 두고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must-pass bill)인 지니어스 법안’에 덧붙여 처리하는 우회 전략까지 고려 중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펀치볼(Punchbowl)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설득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종 합의가 결렬될 경우 꼭 통과해야 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플랜 B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대마초 업계 면허 반납·폐업 증가세... 올해만 23곳 영업 중단

## 23곳 영업 중단에도 올해 상반기만 38개업소 문 열어 경쟁심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대마초 업계가 경쟁심화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 반납과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Boston Business Journal)이 매사추세츠 대마초관리위원회(Cannabis Control Commission)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지금까지 총 23곳의 대마초 관련 업체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기한 만료로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곳은 소매 면허를 가진 업체로, 이는 지난해 전체 기간 동안 비활성화된 소매 면허 수와 동

일하다. 이로써 면허 반납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로 지난해 이전까지 매사추세츠에서 자진 반납된 소매 면허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연초부터 2025년 중 대마초 업계의 폐업 증가를 예측한 바 있으며, 이번 수치는 그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는 현재 성숙 단계에 접어들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마초 시장 초기와 비교해 기호용 제품의 가격이 급락했으며, 주내 경쟁은 물론 인근 주들과의 경쟁 심화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전반의 경기 불안정이 중소기업

### 〈전체 기사 읽기〉

에 타격을 주면서 대마초 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자료는 5월 19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제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후 면허를 반납했거나 기한이 만료된 업체만 포함한다. 면허를 받았지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되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복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면허 상실이 곧바로 사업 전체의 종료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6월 20일까지 총 38곳의 신규 대마초 업체가 문을 열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을 시작한 사업체 수를 반영한 것이다.



# 매사추세츠주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동물 감염... "인체 감염 우려"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보건부(DPH)는 올해 주내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동물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감염은 루넨버그(Lunenburg) 지역의 염소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루넨버그와 이웃한 레먼스터(Lemonster), 셸리(Shirley), 피치버그(Fitchburg) 등 4개 타운의 위험 수준을 ‘보통(moderate risk)’으로 상향 조정했다.

로비 골드스타인 매사추세츠주 보건국장은 “동물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은, 인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지역 내에 충분히 퍼져 있으며 기후 조건도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골드스타인 국장은 “고온다습한 기후는 모기의 활동을 증가시켜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경

## 〈전체 기사 읽기〉

고했다.

현재까지 주내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지난해에는 인체 감염 사례 19건이 있었으나 동물 감염 사례는 없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50세 이상 고령자는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보건부는 주민들에게 모기를 방지하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밝혔다.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대를 피하기 ▲긴 옷 착용 및 모기 기피제 사용 ▲집 주변에 고인 물을 제거하고 방충망을 설치해 모기 유입 차단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 보호 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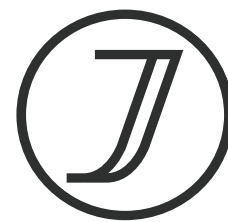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보건부는 “모든 주민이 개인 및 가족, 그리고 동물의 건강을 위해 예방 조치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트럼프 "연준 건물 개보수비 살펴볼것"...파월에 자진사임 압박

### 온라인매체 인터뷰서 "파월 물러나면 좋겠다...그가 결정할 일" "인도와 무역합의 압박했고, EU와도 가능성...캐나다는 아직"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자진 사임하길 바란다는 '속내'를 밝혔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Real America's Voice)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이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내년 5월)전 사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가 사임을 원한다면 너무 좋겠다"며 "그것은 그에게 달려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그가 연준에서 하고 있는 일의 '사기(fraud)'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 물을 개보수하면서 옥상 정원과 인공 폭포, 귀빈(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약 3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그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25억 달러' 지출에 대해 "예산은 (거의) 10억 달러 초과한 것"이라며 "이 사람(

파월)은 연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보수를 거친 연준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라며 "장담컨데 계약한 업체는 큰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 건물 개보수에) 25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그런 사안에 매우 능하다. 나는 그것을 살펴 봐야겠다"고 밝히며 연준 개보수 비용 문제를 계속 파고들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의 존립 근거 법률인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게 돼 있고,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는 해임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책정을 둘러싼 의장의 권한 남용 등이 드러날 경우 그것은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법정 임기가 있는 연준 의장을 직접 해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자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파월 의장이 자진사임하도록 압박하려는 속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파월 의장이 자진 사임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예산 사용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문제로 그를 압박함으로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달말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반(反)하는 금리 동결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일부 언론의 파월 의장 해임 계획 보도를 일단 부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고 답한 뒤 "그러나 그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 해임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들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인도와의 무역합의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으며,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캐나다와의 합의 전망을 거론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상

호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은 약 150개의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단일 상호관세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10% 또는 15%"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래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관세율 및 대미 시장 개방 확대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는 합의를 도출했다.

jhcho@yna.co.kr pan@yna.co.kr

**중환 코리안 메디칼 푸어**  
www.junmyo.co.kr

**좋은사람들**  
www.junmyo.co.kr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에어인디아 추락사고는 기장 책임?... "연료공급 스위치 차단"

WSJ "기장이 스위치 공급 차단 바꾸자 부기장 당황"... 고의성 여부 미확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장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등 문제로 휴직한 경력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60명의 사망자를 낸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사고 조사와 초기 분석 결과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추락 여객기 내 조종사들 간 대화를 담은 조종실 음성 녹음(CVR)에서 부기장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한 직후 기장에게 왜 항공기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작동' 위치에서 '차단' 위치로 옮겼느냐고 묻는다.

부기장은 놀라며 당황했지만 기장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고 WSJ은 보도했다.

또 이륙 당시 항공기를 조종 중이던 부기장은 양손이 바빴을 것이고, 감시 역할을 하던 기장은 손이 자유로워 스위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만약 이 사고가 만약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형사 조사 대상으로 다뤄

졌을 것이며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기장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등 문제로 3~4년간 비행을 중단하고 병가를 낸 적이 있다며 사고 원인이 기장에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인도 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지난 12일 공개한 예비 조사 보고서에서는 한 조종사가 다른 조종사에게 스위치를 왜 옮겼는지 물었고, 다른 조종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스위치를 옮긴 사람이 기장인지 부기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AAIB의 예비보고서에는 연료 공급 스위치 조작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디자인 결함과 기계 고장, 정비 문제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캠벨 윌슨 에어인디아 CEO는 조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에어인디아 171편의 잔해

종사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도들이 나오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종사들이 사전에 음주 측정을 통과했고, 건강 상태에 대한 별도의 의학적 소견은 없었다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선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 게트워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인근 의대 기숙사 건물로 추락했다.

이 일로 항공기 탑승자 242명 중 241명이 사망했고, 항공기 추락으로 지상에서도 19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최악의 항공기 참사로 꼽힌다.

AAIB는 추가 조사를 거쳐 1년 안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laecorp@yna.co.kr

##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 음모론 띄우기? 국격 수호? 보수단체는 왜 모스 탄 고발했나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던 자유대한호국단', 모스 탄 교수 전격 고발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탄 교수를 고발한 것이 강성 보수 성향 단체로 파악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탄 교수를 고발한 곳은 '자유대한호국단'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규합해 만든 단체다.

이들은 2020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으며, 12·3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옹호했다. 지난 대선 땀이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지난 8일 탄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게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단체의 전력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기에, 일각에선 고발에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오히려 공론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 음모론은 2021년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됐고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국격 수호'가 고발 이유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탄 교수가 발언을 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실과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이 이 주장을 퍼나르는 상황'이라며 '제2의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가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 국격과도 상관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조속히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아직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여론을 중심으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나

강제 퇴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말로 알려진 탄 교수의 출국 전까지 실질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away777@yna.co.kr

## 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 "특검 배제" vs "구인영장 발부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

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불출석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진행 등을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

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LY 18th - JULY 24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EASY SPICY CHICKEN

Spicy, fulfilling, and as addicting as your favorite K-drama episode. 매콤하고 든든한, 자꾸 생각나는 간단 짬뽕!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 BEAT THE HEAT KOREAN STYLE 초복

폭풍씨는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을 H 마트와 함께 이겨내세요. 금년 초복은 7월 20일입니다.

White Peach/ Nectarine 백도/백천도 <b>\$2.99</b> LB	Shanghai Choy 청경채 LB <b>\$0.99</b>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b>\$1.99</b> LB	Green Onion 파 BUN <b>3\$1.99</b> FOR	Washington Red Cherry 체리 <b>\$2.99</b> LB	Honey Mango 허니 망고 BOX <b>\$14.99</b>	Lychee 리치 LB <b>\$1.99</b>
Lime 라임 EA <b>4\$0.99</b> FOR	Rambutan 람부탄 LB <b>\$1.99</b>	Napa Cabbage 배추 BOX <b>\$14.99</b>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b>\$6.99</b>	Mandarin 만다린 3 LB/BAG <b>\$3.99</b>	Cherry Plum 체리 자두 1 LB PKG <b>\$4.99</b>	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 <b>\$0.99</b>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10.99</b>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b>\$5.99</b>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b>\$5.99</b>	Frozen Pork Shoulder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목전지살 (불고기용) LB <b>\$6.99</b>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b>\$1.99</b>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b>\$8.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Abalone from Wando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b>\$2.99</b>	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b>\$7.99</b>
SUHYUP Frozen Jeju Beltfish 수협 제주 은빛갈치 PRODUCT OF KOREA 31-33'S/PKG <b>\$7.99</b>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b>\$5.99</b>
Frozen Scallop 조개 관자 10-20'S/LB <b>\$14.99</b>	Sliced Dried Pollack 황태채 LB <b>\$17.99</b>

### SMART CARD MEMBER ONLY

OTOKI Cheesy Ramen 오뚜기 치즈라면 SPICY <b>\$4.99</b> 3.91 OZ X 4 EA/PKG	OTOKI Cheesy Ramen 오뚜기 치즈라면 CHEDDAR <b>\$4.99</b> 3.91 OZ X 4 EA/PKG
SAMYANG Meptang Black Pepper & Beef Ramen 삼양 맵탱 흑후추 소고기라면 <b>\$4.99</b> 3.88 OZ X 4 EA/PKG	SAMYANG Meptang Garlic & Clam Ramen 삼양 맵탱 마늘조개라면 <b>\$4.99</b> 3.88 OZ X 4 EA/PKG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b>\$9.99</b>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b>\$9.99</b>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3 OZ X 16 EA/BOX <b>\$11.99</b>	HAI0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b>\$5.99</b>	HALLA FOOD Tuna Sauce 한라식품 참치액 16.9 FL OZ <b>\$6.99</b>
CHUNG JUNGONE O'Food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MEDIUM HOT <b>\$7.99</b> 2.2 LB	CHUNG JUNGONE Pork Loin Cutlet 청정원 참작 수제 등심 돈가스 <b>\$7.99</b> 12 OZ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b>2\$13</b> FOR 1.1 LB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르셀 궁중당면 클드 <b>\$3.99</b> 1.5 LB	PULMUONE Sliced Pickled Radish with Perilla Leaves 풀무원 갯잎무쌈 <b>\$2.99</b> 10.58 OZ
HAI0 Canned Whei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b>\$6.99</b>	K TOWN Dukboki Snack 케이타운 쌀떡볶이 스낵 5.29 OZ <b>\$1.99</b>	Reversible Kitchen Mat (Marble) 양면 싱크 매트 (마블) SMALL (29.5 X 18.1 X 0.5 IN) MEDIUM (37.4 X 18.1 X 0.5 IN) LARGE (47.2 X 18.1 X 0.5 IN) -\$17.99-25.99 <b>\$13.99-19.99</b> EA	CIMILAX Wonder Bowls 씨밀렉스 원더 믹싱볼 (채반포함) -\$10.19 <b>\$7.99</b> 5.8 L LIME EA	KüHAUS Electric Water Boiler & Dispenser 쿠하우스 전기 자동급수 보온포트 3L/WHITE -\$64.99 <b>\$49.99</b> EA

### SURPRISE JONGGA KIMCHI SUPER SALE

**JONGGA**

**2\$17.99**  
PKG/FOR

종가집 맛김치  
특/별/할/인 35 OZ  
UNTIL JULY 24TH, 2025

KOREA'S #1 KIMCHI IS ON SALE.  
BUY JONGGA'S MAT KIMCHI(35 OZ)  
AT A SPECIAL PRICE.  
2 FOR \$17.99 (REGULAR 1 FOR \$11.99)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제봉</b>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지현</b>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연</b> 617.447.0501 nohmiyeon@bostonpremierrealty.com	 <b>박주</b>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희</b> 978.866.3248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이진우</b> 401.538.3397 ryee@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연</b>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김</b>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b>김수진</b> 617.528.6973 kimsoojin@bostonpremierrealty.com	 <b>민소연</b> 253.503.0347 mi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희</b> 413.507.1400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손정태</b>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진</b> 617.877.0387 jin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영순</b> 781.836.3412 sooyoung@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희</b> 617.915.1162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이중국</b> 617.543.0728 junggook@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희</b> 404.641.9102 sooyoung@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iong</b>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민 박</b>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경 김</b> 781.596.0409 kim@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100년 빈도 물폭탄에 충남 곳곳 범람 · 침수...기차길 · 도로 통제

## 서산에 시간당 114.9mm 극한호우...충남 5개 시군 학교 일괄 휴교령

## 차량 침수로 1명 숨져, 주민 124명 대피...오늘까지 최대 180mm 더 내려

(충남·세종=연합뉴스) 박주영 한종구 양영석 기자 = 밤사이 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홍성 갈산천이 범람하는 등 다수의 금강지류 하천 수위가 심각단계에 도달하고 산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서산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침수되면서 50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코레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항선, 서해선 일부 구간 일반열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 시간당 100mm 폭우에 하천 범람 · 곳곳 침수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서산에 344mm의 강수량이 기록됐고 서천 춘장대 266mm, 태안 238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밤사이 200~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서산엔 시간당 114.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100년에 1번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물폭탄이 떨어진 서산 성연면 성연삼거리 일대에는 빗물이 가득 차고, 읍내동 골목과 도로도 침수됐다.

당진시 채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10여대가 침수됐다.

폭우에 홍성 갈산천이 범람했고, 당진천에 유입되지 못한 빗물은 주변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홍성군은 갈산천 시장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고, 당진시는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봉평리, 모평리, 대운산리 등 저지층·저지대 거주 주민들에게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금강지류인 예산 삼교천 4개 지점 수위가 모두 홍수 경보단계를 보이고 있으며, 당진 역천, 세종시 상조천교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특히 삼교천 구만교 지점 수위는 경보 수위인 7.3m보다 2m가 높은 9.72m에 달했다.

◇ 고속도로 · 기차길 통제되고 학교 휴교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립청은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부여, 서천 등지의 84가구·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당진천 주변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주민 50명이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고,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서천군 서면 도둔리 마을 주민 3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더 많

게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으며, 이어 오전 6시 15분께 인근에 주차돼 있던 다른 침수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의 50대 남성을 발견해 서산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끝내 숨졌다.

기상청은 오늘 시간당 20~6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17일 새벽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폭우로 잠겨 있다.

정미초와 용연유치원도 진입로 일부가 물에 잠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 침수 · 산사태 우려 속 충남 주민 124명 대피

밤사이 쏟아진 폭우에 충남지역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졌다.

은 비가 예보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산에서는 한 침수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5시 14분

기상청은 "충남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50~150mm, 많은 곳은 180mm 이상 내리겠다"며 "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17일 새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도로가 폭우로 잠겨 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ULY 17<sup>th</sup> - JULY 24<sup>th</sup>, 2025**



**ORION**

**Turtle Chips 2 Mix**  
**오리온 꼬북칩**  
**콘스프맛 & 초코츄러스맛**



**LIMIT 2 BOX/**  
**7 SWEET CORN +**  
**7 CHOCO CHURROS/**  
**0.88 OZ X 14 EA/BOX**

**\$8.99**

**14팩**



**BAEKJE**  
**Himokawa Udon**  
**백제 히모카와 우동**



**\$7.99**

**LIMIT 2 BOX/1.91 LB**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전지적 독자시점' 안효섭 "내가 너무 멋있나? 경계하며 촬영했죠"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누구나 멋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이번 촬영에서는 그걸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우 안효섭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에서 내세울 것 없는 청년 '김독자'역을 연기하며 가장 중점을 둔 지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안효섭은 "제가 감독님에게 자주 한 말이 '혹시 제가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며 웃었다. 키 크고 잘생긴 '인간 안효섭'을 내려놓고, 이리저리 치이며 자존감이 바닥을 친 독자라는 인물과의 괴리를 없애는 작업에 몰두했다고 한다.

'전독시'는 인지도 없는 웹소설의 유일한 독자로 10년을 함께한 감독자가 소설 속 세계관이 현실로 펼쳐지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액션물이다.

독자는 현실에선 보잘것없는 인물이지만, 소설이 현실이 된 세계에선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이끈다.

안효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성장해갈수록 전투 자세를 점차 갖춰 나가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독자가 소설 속 주인공들을 현실에서 만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연기하는 데에는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을 연기한 배우 이민호의 존재감이 도움이 됐다.

안효섭은 "(이민호는) 어렸을 때 저에게 연예인이었다"며 "정말로 '나의 연예인'을 보듯 신기해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떠올렸다.

화려한 액션은 관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지만, 촬영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안효섭은 "버티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안 듣는 순간도 있었고, 모든 배우가 한 번씩은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다양한 괴수들과 싸우는 장면은 현실감을 위해 사전에 디자인을 상세히 공유받았다. 안효섭은 "(괴수의 몸이) 물렁물렁한 살인지, 딱딱한 살인지 등 특성이 모든 배우에게 공유됐다"고 했다.

'전독시'는 안효섭의 스크린 데뷔작이다. 메가 히트를 기록한 동명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삼았고, 약 300억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흥행에 대한 부담이 클 법도 하다.

하지만 안효섭은 "배우로서의 최선은 현장에서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 순간부터는 제 손을 떠난 일 같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감독자라는 인물을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며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뜻깊은 인물이라서 흥행을 소망해볼 뿐"이라고 덧붙혔다.

그룹 사자 보이즈의 '진우' 목소리를 연기한 넷플릭스 미국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이데몬')의 성공에 대한 감회도 밝혔다.

안효섭은 "영어로 연기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며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K팝이란 주제도 주제지만 대부분 자체가 재미있었다"면서 "한국 문화가 더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섭은 또 '케이데몬'에 힘입어 "저희 영화(전독시)도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2시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관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재미있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시간 아깝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핸디맨 앤디**

HA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KOREAN HERITAGE NIGHT 08.22

우스터와 함께하는 특별한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티켓구매

**Polar Park**

100 Madison St.  
Worcester, MA 01608

**6:00 P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2) 부자와 낙관적인 마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에 백만장자는 2,300만 명으로 전 세계 백만장자의 40%를 차지한다. 한국에서의 백만장자도 130만 명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여기저기에 백만장자가 많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씩 백만장자가 탄생하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부자가 되려는 방법은 다양하다. 부자 집에서 탄생, 놀라운 장사 비결, 전문적인 직업, 부자와 결혼, 로또 당첨, 등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일부분의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그렇다면 미국에 이민 온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코로나가 시작한 2020년 3월 말 이후 미국 전 국민의 순자산이 \$110 trillion에서 \$180 trillion으로 불어났다. (참고로 \$1 trillion이란 \$1,000 billion을 말하고 \$1 billion은 \$1,000 million을 말한다). 순자산이란 집, 주식, 채권, 자동차, 현금 모두에서 주택 융자금, 신용카드, 학자금, 자동차 융자, 등 모든 빚을 제하고 남은 자산을 말한다

미국 전 국민 전체 자산 \$180 trillion에서 탑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62.6%이며 빚은 24.5%이다. 그다음 국민 40%는 자산이 33%이며 빚은 45%가 된다. 나머지 50%의 국민은 자산이 5.6%에 빚은 무려 30.9%가 된다. 요약하면 부자는 빚보다 자산이 훨씬 많고 가난할수록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미국 부자 대부분의 자산은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부자 탑 1%가 주식시장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구의 절반인 바닥 (Bottom)에서 50%는 단 1%만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다. 참고로 탑 10%가 주식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한다. 이것이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경제가 어렵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등은 부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미국의 탑 부자 10%가 미국 경제 소

비의 50%를 차지한다. 미국 부자 소수가 경제 활동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지난 5년 주식시장 연평균 무려 15% 이상이다. 지난 10년도 연평균 수익률은 13%이다. 나의 투자 돈이 3배로 증가한 놀라운 수익률이다. 부자가 부지런히 소비해도 자산은 그 이상 더 불어난다

부자는 경제 침체기, 주식시장 폭락, 등 그때 그 시점에 염려 (It's always something) 해야 하는 일에 개의치 않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을 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투자할 자금도 많지 않지만, 투자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적인 마음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 또한 수시로 변화하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기에 대부분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며 주식시장이 금융 경제의 중심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재정을 튼튼히 하며 부를 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주식시장이란 한 아이가 요요를 하며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러나 언덕을 올라가고 있기에 한 지점에서 요요의 최저점이 지나온 최고점보다도 높은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투자 경험과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다시는 투자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은행 저축이나 현금 보유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특히 요즘 은퇴 기간이 3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을 고려하면 백만장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명한 투자의 목적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성공적인 투자로 여유로운 은퇴를 기대할 수 있다. 성실과 끈기로 뭉쳐있는 우리가 모두 백만장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건강강좌(6)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주관으로 한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 시리즈를 연재 합니다

# 기능성 위장관 질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소화 불량, 복통, 변비, 설사 같은 불편한 증상으로, 막상 병원에서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으면 "정상"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상이라 함은 위궤양이나 종양처럼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는 질환은 없어도 불편한 증상들이 반복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통틀어 기능성 위장관으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질성 질환으로는 위궤양, 위암, 대장암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영상검사나 내시경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환자는 소화불량, 복통, 변비, 설사 등 다양한 증상으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될 경우, 기능성 질환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 흔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명치 부위 통증, 속쓰림, 더부룩함 등 상복부 증상이 주된 경우

기능성 변비/설사: 설사, 변비 등 배변 이상이 주된 경우

과민성 장증후군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하복부 통증과 배변 습관의 변화가 동반될 때

소화기 기능성 질환 외에도 기능성 질환에는 편두통, 만성통증 증후군, 비전형적 흉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진단 기준과 주의할 점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보통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최근 3개월간 주 1회 이상 반복되는 증상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변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거나 호전됨
- 배변 빈도의 변화
- 대변 형태의 변화

이러한 질환은 미국 인구의 약 10~20%가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 원인과 위험 인자

기능성 질환은 단일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주요한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

내장 과민성: 경미한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

식습관: 기름진 음식, 밀가루, 카페인, 술, 흡연 등

사람마다 유발 음식은 다르므로, 특정 음식 섭취 후 증상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취침 직전 식사는 위장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 경고 증상: 꼭 병원에 가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나타날 경우, 과거 내시경 검사 등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기능성 질환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 체중 감소
- 혈변 또는 흑변
-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자주 발생할 때
- 특히 복통과 함께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는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도 상복부 불편감으로 나타날 수 있어, 소화기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 치료 방법

기능성 질환의 치료는 증상에 따라 달라지며, 위산분비억제제, 위장관 운동조절제, 진경제, 혹은 필요 시 가벼운 신경 안정제 (진통효과)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약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 조절, 규칙적인 운동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습관 교정, 약물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경감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난치성의 경우가 10~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한국인과 위암: 조기 검진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위암의 유병률이 낮아 내시경 검진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만 40

세 이상 남녀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 1세대는 한국의 식생활 습관을 이민 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위암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고,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큼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주기적인 내시경 검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하며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반복되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고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태근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 하버드 의과대학 교환교수 2025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 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매일 직장에 안 나가셔도 자택 근무가 가능 하므로 어디에 사는지는 상관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안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또한 집값과 인구 등 상세하게 써 보겠다.

이 순위는 철저히 치안과 범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택 근무를 하시거나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밑에 도시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여행지로 택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순위는 포브스(Forbe)가 FBI에 범죄 비율을 분석해 범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해 선정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법 집행, 경찰, 교정 등에 드는 지출이 증가해 지역 부담이 크다. 따라서 범죄율이 낮은 곳에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가장 안전한 도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7위는 Santa Ana, California이다. 우리가 잘 아는 얼바인이라는 도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LA에서는 남쪽으로 약 40 마일 그리고 교육과 문화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 해변도 가까이 관광지로도 인기가 있지만 도시에 안전한 주거지로도 손꼽힌다. 도시인구 약 310,523명, 평균가구소득 약 \$85,914, 평균주택

가격은 \$688,200이다.

6위는 Lexington, Kentucky이다. 아마 한국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일 것이다. 렉싱턴은 켄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대학교와 연구 기관이 밀집해 있어 관련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농업과 말 산업의 중심지로도 유명하며 이들 산업이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렉싱턴은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안전하고 가족 단위로 거주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도시인구 320,154명, 평균가구소득 약 \$66,392, 평균주택가격은 \$294,300이다.

5위는 San Diego, California이다. 샌디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이다. 아름다운 해변 온화한 날씨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해양 산업과 첨단 기술이 발달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지역이다.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은퇴하고 싶으신 분들께 가장 좋은 곳이다. 도시인구 1,388,312명, 평균가구소득 \$105,780, 평균주택가격 \$923,900이다.

4위는 Henderson, Nevada이다. 헨더슨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살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라스베가스와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보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가족 단위 거주지로 인기가 높다. 도시인구 337,280명, 평균가구소득 \$82,476, 평균주택가격 \$493,800 이다.

3위는 Virginia Beach, Virginia이다. 버지니아비치는 버지니아주 동부 대서양에 접한 해안 도시이다. 아름다운 해변과 탁 트인 해안선 그리고 사계절 내내 비교적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살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 사계절 내내 살기 좋은 기후를 자랑한다. 버지니아비치는 미군에 주요 기지가 자리한 군사 도시이면서 관광 사업이 활발해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인구 453,649명, 평균가구소득 \$91,141, 평균주택가격 \$384,200 이다.

2위는 Honolulu, Hawaii이다. 호놀룰루는 하와이주의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이다. 가장 변화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기후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도시이다. 호놀룰루는 관광 산업이 중심이긴 하지만 교육과 의료 주거 환경 또한 매우 뛰어나 살기 좋은 도시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도시인구 341,753명, 평균가구소득 \$84,907, 평균

주택가격 \$831,600이다.

1위는 Irvine, California이다. 이 어바인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고급스러운 주택지 우수한 교육 시스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선호하고 있다. 어바인은 기술 산업과 대학들이 중심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특히 교육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만만치 않다. 도시인구 314,615명, 평균가구소득 \$127,989, 평균주택가격 \$1,199,600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7월 20일 - 7월 26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앞을 대비한</b></p> <p>● 운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금전: 앞을 대비한 사람과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상황을 만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소띠   사랑의 힘으로</b></p> <p>● 운수: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을 앞세우기보다는 때로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여유를 보이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 애정: 약간의 손해나 고집, 자존심을 버리면 사랑의 힘으로 해결점에 접근하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범띠   모든 일을 종결짓는</b></p> <p>● 운수: 중요한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직접 해야 손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금전: 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흔들리던 마음을 바로잡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p>
<p><b>토끼띠   회복의 단계로</b></p> <p>● 운수: 서슴지 말고 협력을 부탁하면 그쪽에서도 흔쾌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귀인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오게 됩니다. 확실한 기회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 애정: 불편했던 부부관계나 이성 관계에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멀어졌다고 느끼던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군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0, 25일 길일. 22, 24일 주의.</p>	<p><b>용띠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b></p> <p>● 운수: 주위와의 마찰이나 충돌의 위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정을 취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 금전: 마음의 의지 여하에 따라 일의 성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할 때는 도리어 손해가 됩니다. ● 애정: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은 인연 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고 있군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20, 26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뱀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b></p> <p>● 운수: 기회는 자주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 금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큰 수확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 애정: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3, 24일 길일. 20, 26일 주의.</p>
<p><b>말띠   새롭고 희망적인</b></p> <p>● 운수: 매년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야 새롭고 희망적인 길이 열립니다.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참고에 곡식이 쌓이는 운세입니다.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사업과 관련해서 돌파구가 생길 징조가 보입니다. ● 애정: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애정 문제에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0, 23일 길일. 21, 22일 주의.</p>	<p><b>양띠   역전의 시기가 다가오고</b></p> <p>● 운수: 우울한 감정은 털어 버리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나 역전도 가능합니다. ● 금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소지품 단속을 확실히 하고 집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관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경솔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원숭이띠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b></p> <p>● 운수: 차분하게 현재 돌아가는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전: 미리 걱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선 문을 두드리세요. 찾으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평소보다 접점이 많고 아쉬운 분위기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기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2, 26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닭띠   관용을 베풀고</b></p> <p>● 운수: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금전: 쉽게 얻어서 쉽게 쓸려고 하면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행운이 따라옵니다. ● 애정: 참다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를 해주고 부드러운 말로 얘기를 하면 관계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개띠   때로는 미련하게</b></p> <p>● 운수: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휩쓸리면 경솔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포자기하지 말고 때로는 미련하게 버티야 합니다. ● 금전: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으니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미련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돼지띠   어떻게 관리하느냐</b></p> <p>● 운수: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겠습니다. 주말쯤에는 풀려나갈 것입니다. ● 금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 애정: 별거나 불화 중인 기혼자는 재결합의 기회가 옵니다. 새로운 연인과 만남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 외신도 '케데헌' 돌풍 주목... "가상의 K팝 신인이 음원차트 점령"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인 돌풍을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미 N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 번도 실제 무대에 오른 적 없는 두 신인 K팝 그룹이 음악 차트를 점령하고 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조명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악령들로부터 인간세계를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탄생한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와 인기 경쟁을 벌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이른바 '케데헌' 돌풍을 전하며 NBC는 "애니메이터와 영화 제작진이 K팝 업계의 도움을 받아 탄생시킨 가상 그룹 사자 보이즈와 헌트릭스는 이미 글로벌 슈퍼스타가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케데헌'은 지난달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은 글로벌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사자 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은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골든', '하우잇츠던', '소다팝' 등 다른 OST도 상위권에 들었다.

영화 팬들은 틱톡커뮤니티를 팬 아트로 가득 채웠고, 레딧에

서는 속편 제작 여부를 둘러싼 추측을 포함해 영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틱톡에서도 팬들이 영화 속 안무를 따라 추거나 주요 장면에 대한 반응을 공유하는 영상이 수억 뷰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처음부터 K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는 아니었다고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은 NBC 인터뷰에서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악마 사냥꾼' 이야기였는데 한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다가 악마학(demonology)으로 흘러갔고, 악마 콘셉트가 자연스럽게 K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한 9년 전 쯤 방탄소년단(BTS)이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제작사가 K팝을 소재로 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창 고민했다고 한다.

당시 누구도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강 감독은 '악마 사냥'과 K팝을 결합해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 이를 뮤지컬 형태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발전시켰다.

그는 "작곡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스토리를 진전시키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긴 '팝'의 요소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며 "노래가 전통적인 뮤지컬 느낌이 되면 작곡가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쿨하고 팝스러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하곤 했다"고 회고했다.

NBC는 이 같은 제작 일화를 소개하며 "제작진의 노력은 통했고



노래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도 최근 "가상 K팝 밴드가 미국 차트에서 BTS와 블랙핑크를 이겼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가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사자 보이즈의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1위 소식을 전하며 "블랙핑크와 함께 작업해온 데디, BTS와 협업한 린드그렌 등 정상

급 프로듀서들이 제작에 참여했기에 앨범의 성공이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사자 보이즈를 사랑한다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K팝 지식을 확장하라"며 사자 보이즈의 대표곡 '유어 아이돌'과 비슷한 K팝 17곡을 추천하기도 했다.

포브스가 추천한 곡은 ▲ 엔하이픈 '비이트미' ▲ 엑소 '마마' ▲

에이티즈 '데자뷰' ▲ 지민 '셋 미 프리 Pt.2' ▲ 태민 '길티' ▲ 방탄소년단(BTS) '블랙 스완' ▲ 최강창민 '데빌' 등이다.

포브스는 "영화의 반전 가득한 스토리 라인에 빠져들고 사운드트랙 곳곳에 담긴 다양한 스타일을 탐색하는 새로운 팬들에게 지금이야말로 K팝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rice@yna.co.kr

# 영화 '슈퍼맨' 북미 1천700억원 수입...DC스튜디오 8년만의 흥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할리우드 DC스튜디오의 영화 '슈퍼맨'이 북미에서 개봉 첫 주 1억달러가 넘는 흥행 성적을 내면서 DC스튜디오의 부활을 알렸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이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의 집계치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1일 북미 4천135개 극장에서 개봉한 '슈퍼맨'은 사흘간 1억2천200만달러(약 1천683억원)의 티켓 매출을 올렸다.

이는 올해 북미 전체 개봉작 중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며, DC스튜디오의 작품 중에서는 2017년 '원더우먼'(1억300만달러) 이후 8년 만에 개봉 첫 주 북미 수입 1

억달러를 넘긴 작품으로 기록됐다.

DC 스튜디오의 그간 개봉작인 '저스티스 리그'(2017), '샤잠!'(2019), '플래시'(2023), '조커: 폴리아되'(2024) 등은 혹평을 받거나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 개봉한 '슈퍼맨'은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등을 연출한 제임스 건 감독이 DC스튜디오의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한 이후 내놓은 첫 영화이자, 새롭게 구축할 DC 세계관의 첫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슈퍼맨 시리즈의 이전 작품들과 비교하면 잭 스나이더 감독의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2016)이 개봉 첫 주 기록한 티켓 수입 1억6천600만달러를 뛰

어넘지는 못했지만, '맨 오브 스틸'(2013)의 1억1천700만달러(인플레이션 미반영 수치)와는 비슷한 수준을 달성했다.

DC스튜디오를 소유한 워너브러더스는 '슈퍼맨'의 개봉 첫 주 전 세계 흥행 수입을 2억1천700만달러(약 2천94억원)로 추정했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약 2억2천500만달러(약 3천104억원)로 알려져 있다.

워너브러더스의 배급 책임자 제프리 골드스틴은 "DC스튜디오에 꽤 큰 승리"라며 "우리는 그동안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한발 뒤로 물러나 스스로를 재창조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하나님의 춤꾼이 되어' 일곱 번째 산문집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2024년 12월 27일 남편 떠나보낸 빈 자리 '환갑'을 자축하며 그동안 신문에 올렸던 칼럼 글들을 모아 '삶의 춤꾼이 되어'의 제목으로 여섯 번째 산문집을 출간했다. 사실 두 권의 책 제목은 몇 년 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해 놓았지만, 사역에 열중하다 보니 책을 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져 미루고 말았었다. 지난 2018년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산문집을 내고 6년 만이었으며, 그 후부터 남편을 떠나보낸 2021년 3월까지의 이야기들이 담겨졌던 책이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게 된 것은 2021년 후반부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상담학 박사과정(Doctor of Ministry in Pastoral Counseling)을 이수하는 중에 있다. 사역으로 <뉴욕선교센터(NYMC)와 '레디오 설교방송 사역'과 '신문 문서사역'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내년쯤 출간하려던 산문집 '하나님의 춤꾼이 되어'를 2025년 9월로 앞당겼다. 그 이유는 이번 가을에 '목사안수'를 앞두

고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 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고 사역을 함께 하는 동역자들과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레디오 방송 청취자들과 신문 애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2021년도에 떠나보내고 지난 5년여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바쁘게 달려왔다. 공부하느라 바쁘게 보냈고, 사역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생각해 보니 참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싶다. 바쁘게 보냈던 시간이 내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많이 힘들었을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돌아볼 틈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기만을 바라고 재촉하셨던 것이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고 완벽하신 그 손길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 뿐이다.

'하나님의 춤꾼'으로 남의 눈치 살피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 간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 6:27) 우리는 경험했지 않은가. 내가 걱정할 들 그 무엇하나 내 마음대로 되었던 것들이 몇이나 있었던가 말이다.

매일 기쁜 마음과 평안으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마음이 평안한 날이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이다.

내게 불어닥친 갑작스런 환경에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를 한번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플만큼 아프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혼자서 겪어야 할 몫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깨달음이 지혜가 되어 나의 삶에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감사를 배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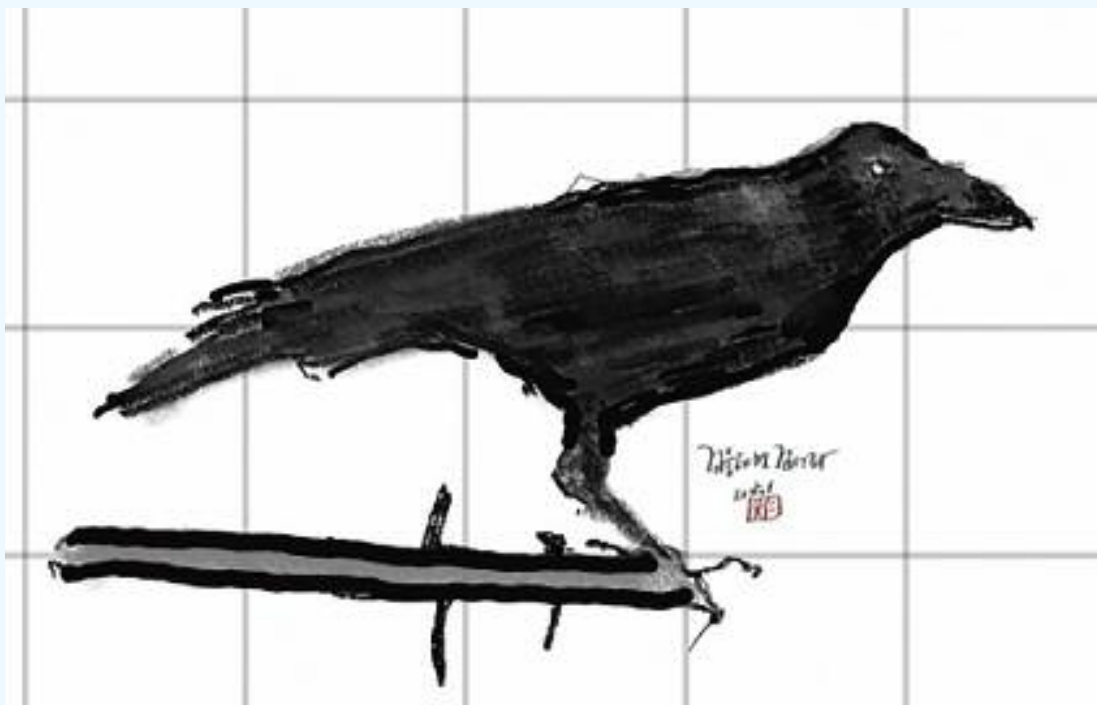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통해서 삶의 깊이를 깨닫는다.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으로의 기도 시간은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그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으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 복잡함의 세상 것에 얽매어 시끄럽게 이리저리 치우치는 일들이 줄어든다. 세상은 또 얼마나 혼돈스럽고 시끄러운가. 이럴 때일수록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 나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2025년 가을 '목사안수'를 받는다. 하나님의 길에서 바른 방향으로 꺾대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길 간절히 기도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용사로서, 군사로서 맡은 책임을 잘 완수하길 기도한다. 기도꾼, 전도꾼, 선교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자로 제대로 바로 서서 나아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까마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IQ 검사가 있다. 지능지수라 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측정 대상인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동물중엔 원숭이나 오랑우탕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단다. 코끼리와 돌고래가 뒤를 이으며, 까마귀가 선두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뭐 까마귀라고? 까마귀고기를 삶아 먹었다냐는 한국속담은 바뀌어야 한다. 총명하다 알려진 개는 순위가 밀린다.

깃털색이 너무 검어 그런가. 아니면 울음소리가 듣기에 달갑지

않아 그런가. 까마귀는 별로 반갑지 않은 날짐승이다. 까치와 사뭇 비교되는 거다. 동물의 왕국파위나 삼류 웨스턴 무비에도 까마귀는 등장한다. 동물의 사체死體를 발견하면 몰려드는 거다. 까마귀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감인 모양인게라.

한자漢字에선 까마귀 오우자가 사뭇 이채롭다. 까마귀 오우자와 새 조류이다. 글자 모양이야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인데니 다들리 없다. 그런데 까마귀는 획 하나가 빠

졌다. 역시 까마귀는 보통 새와는 다른 부류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가. 누구는 아예 까마귀가 새도 되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에서 까마귀는 길조가 아닌 흉조라 여긴다.

오합지졸烏合之卒이란 사자성어도 있다. 쓸데없는 자들이 모인 형편없는 무리라는 뜻이다. 까마귀를 줄추로 보고 하는 이야기인게다. 그러나 개성이 강한 까마귀처럼 무리를 지을 수없는 없음을 뜻으로 담고 있는 것 아닐까. 실은 까마귀 각자는 똑똑하기에 외

톨이건 아닐까 말이다. 오세영 시인이다. 시인데 제목은 나의 자화상이다. 몇 구절 옮겨 놓는다. 시인은 외톨이 검은 까마귀가 되고 싶단다.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오세영, 나의 자화상 중에서)

한국 시조에도 나온다. 곁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냐. 까마귀는 검다 한들, 똑똑하다. 제 살길은 제가 찾아 나가는 거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24)

참! 필자가 나온 학교는 상징이 독수리이다. 라이벌 학교측에선 까마귀로 낮춰 부르며 놀린다. 애교일테니 내게 까마귀가 낯설지만은 않다.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휴가 후 아이가 '눈이 따갑다' 호소한다면, 눈에 화상 가능성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름철 강한 햇빛으로 위험한 광각막염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김주연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피부는 타거나 살갗이 벗겨진다. 강한 햇빛과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에는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눈 건강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눈도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될 경우 화상을 입는다. 눈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다면 각막 상피에 화상을 입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광각막염이 발생한다.

여름은 자외선 지수가 높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광각막염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바닷가나 산에서 많이 발생하며 겨울철에는 스키장에서도 흔하다. 여름철 해변은 자외선(UV-B) 지수가 매우 높다. 자외선은 각막의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광각막염을 유발한

다. 특히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는 고위험 시간대다.

자외선 반사광 효과로도 눈이 손상된다. 해변에서는 마른 모래, 바닷물, 물결 표면이 자외선을 강하게 반사한다. 건조한 모래는 자외선을 최대 25%, 바닷물은 최대 30% 반사할 수 있다. 눈은 직접적인 자외선뿐 아니라 반사된 자외선에도 노출돼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김주연 센터장은 “해변에서는 강한 자외선과 반사광 효과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거나 UV 차단 기능이 없는 렌즈를 착용한다”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는 동공을 확대시켜 오히려 자외선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눈이 더 민감하고 보호본능이 부족해 광각막염에 더 쉽게 노출된다. 어린이의 각막과 수정체는 상대적으로 더 투명해 자외선이 망막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 습관이 부족하고 햇빛을 오래 쳐다보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UV400 이상 차단되는 어린이용

선글라스를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광각막염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개 6~12시간 후 붉은 모래가 굴러다니는 듯한 통증이나 이물감 등의 불편한 증상을 느낄 수 있다. 눈부심이 생기거나 눈물이 많이 흘러 눈을 뜨기 힘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반나절 후에 시작되므로 보통 휴가를 다녀온 후에야 증상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의 경우 ‘눈이 아프다’ ‘눈이 따갑다’ 는 말을 반복할 경우 광각막염 가능성이 있으며 즉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김주연 센터장은 “광각막염은 대부분 24~72시간 내에 회복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안약, 진통제 등을 처방한다”며 “광각막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강한 시간대를 피해 활동하고, 어른에 비해 눈 자체가 연약한 아이들은 보호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센터장은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보호안경 없이 용접할 경우, 락스 사용 등 일상적

인 행동에 의해 광각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며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짙은 색상보다 UV 차단 기능 유무가 더 중요하며, 용접과 스키 등 특수 환경에서는 보호장비가 필수다. 렌즈 착용자나 어린이의 경우 광각막염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휴가 후 아이가 ‘눈이 따갑다’ 호소한다면, 눈에 화상 가능성’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융자 전략: 언제가 좋을까? 현재 시장 상황과 주의해야 할 함정들

Article (11) - Refinancing Strategies: When does it make sense, current market considerations, and common pitfalls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묻습니다. "지금 재융자 하는 게 맞을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략과 주의사항을 이해하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재융자가 유리한 경우

재융자는 단순히 낮은 금리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목적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 줄이기:** 현재 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보다 0.5%~1% 이상 낮다면 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크거나 집에 오래 거주할 계획이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집 자산 활용 (현금 인출):** 집값 상승으로 생긴 자산을 이용해 리모델링, 고금리 부채 통합, 혹은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자산은 '공짜 돈'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단축:** 30년 대출을 15년 혹은 20년으로 줄이면 총 이자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변경:** 변동금리(ARM)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장기적인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장 동향

2025년 중반 기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율은 6.5%에서 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6.7% 선에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지난 몇 년간의 이율 변동 추이를 시각화한 것으로, 팬데믹 당시 2~3% 수준에서 2022년말 7%대

까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 역시 6%~7% 수준으로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지 금리는 단기간에 팬데믹 시절처럼 급락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의 안정'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향후 수개월 혹은 연 단위로 금리가 소폭 변동하는 범위 안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융자를 고려할 때는 '쪼개기 전략'

보다는 고객의 현재 대출 조건과 장기 거주 계획에 기반한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 재융자 시 주의할 점

금리만 보지 말 것: 낮은 금리가 항상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수수료, 포인트,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 차이에 따른 월 페이먼트와 총 이자는 용자금액도 영향을 주기에 손익분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기간 초기화:** 기존 대출을 새롭게 30년으로 다시 시작하면, 월 납입금은 줄어들더라도 총 이자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맞춰 맞춤형 대출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 매도시:** 재융자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회

수할 수 있을 만큼 해당 주택을 오랜 기간 소유를 할 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앞으로 단기간내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더 꼼꼼히 비교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현금 인출:** 집값이 하락하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너무 많은 자산을 인출해버리면 페이먼트 부담이 커지거나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재융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현재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Wegovy, Zepbound - 도대체 어디서 누가 처방하고 보험 승인은 어떻게 받나?

##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비만은 더 이상 혼자 끔찍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체중 조절도 의사와 함께, 과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약이 바로 Wegovy(위고비)와 Zepbound(젠포운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뉴스나 병원에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병원에서나, 아무 의사나 바로 처방해주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아래의 단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단계: 나는 처방 대상일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처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Wegovy나 Zepbound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BMI ≥ 30:** 비만 (단독 조건으로 처방 가능)

**BMI ≥ 27 + 동반 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제2형 당뇨, 수면무호흡증 등

**2단계: 보험을 도와줄 병원을 찾자**

이 약들은 월 \$1,000을 훌쩍 넘어가는 고가의 약물입니다.

의학적으로 처방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 비용을 실제로 부담할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절차가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PA)입니다.

이 PA 과정은 병원이 보험사에 "이 환자는 이 약이 꼭 필요하다"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통 주치의(PCP)에게 물어보시면, 주변에 이 약을 자주 처방하는 병원을 소개해줄 겁니다.

보험이 안 되면? 대안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험사가 PA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커버하고 높은 본인부담금을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① 제약사 할인 프로그램**  
Zepbound (Eli Lilly): 본인부담금을 월 \$25까지 낮추거나, 보험이 안 될 경우 월 \$499에 구매 가능

Wegovy (Novo Nordisk): 본인부담금을 \$0까지 낮추거나, 보험이 안 될 경우 월 \$499에 구매 가능

**② 저가 대체약 사용**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구약은 한 달에 약 \$25 정도로 시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GLP-1 계열 약 못지않은 체중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Tip**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 위고비나 젠포운드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면?

비만은 더 이상 혼자 끔찍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체중 조절도 의사와 함께, 과학적으로!

**1 단계: 나는 처방 대상일까?**

- BMI ≥ 30
- BMI ≥ 27 + 동반질환

**2 단계: 보험을 도와줄 병원을 찾자**

- 약값은 월 \$1,000 이상
- 사전승인(PA) 필수

**3 단계: 보험이 안 되면? 대안은 있습니다**

- 보험 없이 월 \$499
- 대체약: 월 \$25로 비슷한 효과

**마무리 Tip**  
의료진과 함께 시작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도와줄 의료진만 잘 만나면 대부분 병원에서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바이러스 같은 가짜뉴스, 예방은 팩트체크 백신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뉴스를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킵니다.  
뉴스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와 비교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모두가 팩트체크라는 백신으로 허위정보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김유진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